

# 지역 사회적경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모델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따복공동체를 중심으로 -\*

장지은\*\* · 김연복\*\*\* · 오민석\*\*\*\*

## A Study on Support Models for Invigoration of Local Socioeconomic Communities - Focused on Ddabok Communities in Gyeonggi Province -\*

Jang, Ji Eun\*\*, Kim, Yeon Bok\*\*\*, O, Min-Suk\*\*\*\*

**국문요약** 본 연구는 근년 확대되어 온 사회적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단체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정비한 경기도 지역을 사례로 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경기도민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따복공동체 정책과 지역공동체활성화요인에 대하여 요구를 조사하였다. 분석에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경기도민의 요구의 특징과 지원의 과제를 밝히었고 과제에 따라서 6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과제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낮은 이해도, 저조한 공동체활동, 사회적경제의 실천의지의 취약성 점을 극복하고 주거지 근처의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나아가 따복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지역민들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따복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통합화형과 개별화형, 수요대응형과 역량맞춤형, 지원집중형과 자원분산형의 지원모델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역사회적경제, 따복공동체, 요구, 지원, 지역지원모델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uggest the tasks which public support groups should fundamentally perceive and develop support models based on it so that socioeconomic activities, which have been spreading in recent years, can settle in local communities. For this aim, this study was proceeded based on Gyeonggi Province, which has established socioeconomic support center at metropolitan councils and local government councils. The demands by Gyeonggi

\* 본 연구는 2016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연구용역,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역화 모델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주저자: jcif@korea.ac.kr)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초빙교수(교신저자: notice97@hanmail.net)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임교수(참여저자: tokyoangel@hotmail.com)

nggi Province residents toward the policies by Ddabok communities and local community invigoration measures have been examined through demand survey. In the analysis, characteristics and support tasks of the demands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nd six support models have been developed according to the tasks. The derived tasks are overcoming low understanding of Ddabok communities, low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and poor will to perform socioeconomic practices and satisfying the demand toward community activity areas adjacent to residence. Furthermore, the differences with the residents who have an experience of taking part in the Ddabok Community Project have to be overcome. Based on these study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support models of integration style and differentiated style, response to demand style and customization to capability style, and resources-focused style and resources-scattered style are necessary in order for socioeconomic communities like Ddabok communities to settle in local communities.

**Key Words:** social economy, Ddabok communities, demand, support, local support model

## 1. 서론

한국 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화하는 저성장과 실업난, 그리고 사회 양극화 속에서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배분과 나눔에 주목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과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공동체·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지역 기반의 공동체활동과 사회적경제의 육성 과제를 사회적 함의로서 도출하여 마을만들기지원조례, 사회적경제육성조례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채중현, 최준규(2012)의 정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하여, 시장이나 국가와는 다른 대안적인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하여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요구와 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방식'이다. 법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부문과 공공부문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영역'으로서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비영리조직을 포함한다. 또한 규범적으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이윤분배에

서 자본보다는 사람들이나 노동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실현하고자 한다(채중현·최준규, 2012). 이와 같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결합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문제해결과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관련정책이 확대되고 있다(최준규, 2016).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가 증가하고 있고 그 조직도 다양하고 있다.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장애인생산판매시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기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대안금융기관, 공정무역, 공유경제 친환경 등 기타 사회문제해결기업, 사회적기업중간지원조직 등 다수의 조직이 사회적경제조직에 포함된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2016년도 현재 기준으로 발표된 인증사회적기업은 1,937개에 이른다. 예비사회적기업(1,167개), 협동조합(10,455개), 자활기업(1,339개), 농촌공동체회사(898개), 마을기업(1,342개) 등이 있다(<https://www.data.go.kr/dataset>, 2018년 5월 검색).

그리고 이와 같이 확대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하여 지자체에서는 지원 전담조직 신설, 다양한 공모사업 등의 재정투입 등을 하고 있어 향후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나 성과제고를 위해 의미 있는 지원전략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된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뜻있는 지도자나 단체에 의존하는 레벨을 넘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를 공생과 상생으로 견인하여 생활차원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지역의 생활과 일상의 차원에서부터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보급을 위한 지원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공동체 및 지역민의 수요에 근거하면서도 지원의 중복성 등을 피하여 지역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가운데 지역화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지역화 모델이란 지역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하여야 할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지원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경제를 보급하는 광역차원의 지원조직인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사업에 대하여 일반시민과 따복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지도 및 수요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원과제를 도출한 후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모델인 '지역화모델'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지역공동체와 지역발전의 다양성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의 협동조합기본법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법제가 정비되기 이전부터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천이 있어왔고 이를 위한 연구 또한 축적되어

왔다. 이 가운데 지역공동체활동은 인재육성, 마을만들기, 지역개발 등과 연계되는 가운데 공동체 활성화 과제가 계속 제기되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은 현재의 지역사회적경제공동체 활성화의 연구에서도 의미 있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본격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일 유형을 이루게 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요인과 관련주제는 지역공동체 복원과 회복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지역재생을 다룬 연구 등에서 나타난다(이기태, 하현상, 2016).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의 성과는 크게 지역공동체의 가치 그 자체에 주목한 공동체 활성화 요인 연구와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도 이분화될 수 있다. 전자에서는 공동체의 가치의 규명, 실천전략과 성장요인들로서 주민참여, 네트워크, 공통의 문제의식, 참여의 매개가 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다양한 소모임, 전문조직구성이 제기되었다(김현호, 2013; 여관현, 2013). 후자의 경우, 공동체를 활용한 별도의 사회적 가치 창조에 유념한 것으로서 주로 일자리 창출이나 나눔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지역문화, 지역발전 등에 관련하여 '방법으로서 공동체에 주목한 것이다(전지훈 외, 2015; 박인권, 2012; 황익주 외, 2012; 이왕진, 2011; 김향집, 2011). 구체적으로는, 공동체활동은 지역문화전략을 형성하고 지역문화전략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며 이러한 지역발전의 성과가 다시 공동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순환관계가 제기되었다(전지훈 외, 2015: 87). 또한 지역재생이 주택이나 도심부의 물리적 노후화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사회적·경제적 영역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김향집, 2011) 지역발전전략수립에서 외생적 자원의존보다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문제해결의 방향이 규범적 모형과 같이 제기된 바 있다(박인권, 2012: 22).

위와 같이 지역공동체 논의에서는, 공동체 가치의 추구이든, 공동체를 활용하여 별도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접근이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연구 등이 이루어진다. 그 중심에는 '지역내발성',

이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유용성’과 ‘공동성’의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 일본의 미야모토 겐이치(宮本 憲一)는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의 문화에 뿌리를 둔 경제발전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힘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시켜나가는 지역개발”이라고 하였다(宮本 憲一 외, 1990; 남승균, 2015). 현재의 논의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지역의 개성, 독자성, 그리고 자치성 등을 중시, 존중하는 로컬리즘(localism)의 기반 위에 주민들이 생활편익이나, 관심을 공유하는 테마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나타난다(金子郁容, 2004). 더 나아가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 요구의 충족, 능력의 개발, 경제적 이익의 공유와 같은 실질적인 유용성의 가치가 공동체성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있고 이러한 공동체의 사업추진 전략에서는 사적인 친밀권(親密圈) 속에 배타적으로 향유되는 공동체와는 차별화된 ‘나눔에 기반을 둔 공동성(sharing)’이 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요인

한편 지역공동체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의 분야에서도 연구되어왔다. 마을공동체에서 평생학습의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활동의 내용, 혹은 마을공동체에 학습이 가지는 기능으로서 지역 교육력 생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평생학습은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양병찬, 2007), 더 나아가 학습을 통한 직접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평소의 학습동아리나 집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체로서의 자각과 역량을 키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내용에서는 교육, 문화, 봉사 다방면에 이르나,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지역을 이해하고 자치의 역량을 키워가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양병찬, 2015). 지역에서 주민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역 교육력’이 생성된다고 하는 것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육공동체를 통하여 마을유산을 이해하고 애호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키워내어 마을공동체와 학습이 의미 있게 연계되어 있다(정병훈, 2016). 다른 한편으로 학습을 통한 공동체육성 전략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공간, 관계망

형성, 네트워크 플랫폼, 지원 플랫폼 등을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마을생태계조성지원이 가능함이 제기되었다(박경민, 2016). 나아가 지역공동체활성화 요인을 다양하게 연구한 여관현(2015)은 마을만들기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구성요소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성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의 지속가능성이 학습, 의사결정, 실천과정의 선순환적인 기반 위에 가능함을 지적하였다(여관현, 2015: 47). 또한, 한상일·정무권·박문수·윤성국(2013)도 학습공동체의 자율성과 관련된 비형식학습의 의의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여 비형식학습의 구조적 조건과 내부적 동기가 충족될 때 성찰을 통하여 개인들이 성장하고 조직에 대하여도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사회적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및 학습에 대한 논의도 제시되었다. 첫째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하기 위한 학습 및 지식창출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박봉원 외(2015)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과 지역의 이슈나 과제를 지역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해결하여 가는 사회기술을 위하여 참여형 혁신공간으로서 우리마을실험실로서의 리빙랩(Living Lab)을 제기하였다. 최인수·김건위(2015)도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지역혁신방안으로 생활 현장 기반의 리빙랩의 설치 및 운영을 들고 있다. 둘째는, 기술력의 제고이다. 김용문 외(2015)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들의 기술성 저조에 주목하여 우수사회적기업들의 시범사업을 통한 홍보 확산, 기술 및 그 적용분야에 대한 연구와 학습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이해력이다. 이현주(2015)는 지역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에서 균형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역적 모델의 차별화, 네트워크, 그리고 성과 측정 및 평가에 대한 이해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지역관련학습의 과제는 공동체 이익추구, 지역 자산 활용 등의 과제(박소연·박인권, 2013), 지역생태계적 접근에 대한 인식 공유(김경희, 2013), 주민의 동기부여 및 참여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이해(최영출, 2004) 등이 강조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면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요

한 요인으로서 지역문제(양병찬, 2007), 지역주민의 참여(최영출, 2004), 지식 및 학습(여관현, 2015; 한상일 외, 2013; 박봉원 외, 2015; 최인수 외, 2015), 지역 공헌(金子郁容, 2004), 나눔 및 공동체 경험(박소연·박인권, 2013)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3) 경기도 따복공동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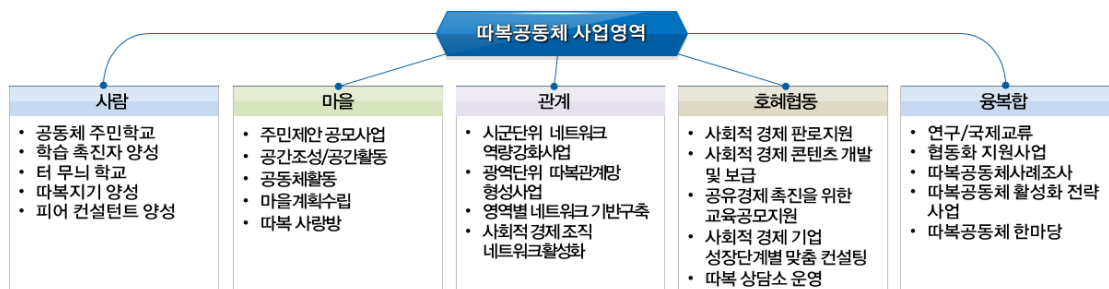
한편 본 논문에서 조사한 경기도 31시군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광역차원의 지원기관으로서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존재한다. 또한 각 시군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혹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고 하는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가지고 사회적경제의 보급을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따복공동체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일상에서부터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태생을 가진 지역사회적경제공동체개념이다. 경기도 따복공동체 백서(2015)에 따르면 따복공동체(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사업은 주민과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이다. 2014년에 경기도에 따복공동체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2014년 4월 사단법인 '마을과 사회적경제'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동년 6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2015, 경기도 따복공동체 백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따복공동체의 실현을 도모하여 왔다. (1) 마을조직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공동체역량강화, (2) 지

역자원의 발굴과 육성, (3) 마을조직이나 사회적경제공동체의 주민참여촉진과 관계망 및 일자리 제공, (4) 마을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공간과 사회참여기회제공 등이다. 또한 제1기 3년간(2014~2017)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그림 1>과 같이 다섯 가지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1) 사람을 키우다, (2) 마을을 그리다, (3) 관계를 만들다, (4) 호혜와 협동의 경제, (5) 융복합이다.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지역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도민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사회적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경기도민의 이해와 요구를 조사하였다. 나아가 따복공동체 사업경험자와 미경험자 간의 차이를 이해하여 사업 참여 경험이 지역화 동력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27일에 걸쳐 행하여졌다. 조사대상자는 일반도민은 경기도 각 시군을 인구비율에 따라 균형 있게 표본수를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1차적으로 500명을 목표로 하여 조사원들이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였고 2차적으로 87명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였다. 이외에도 따복공동체 사업참여자에 대해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의 수혜자 657



<그림 1> 따복공동체의 사업영역  
 ※출처: 2015 따복공동체 백서를 토대로 작성.

명에게 전자메일과 URL에 의한 송신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응답 회수량은 총 719부로 일반 경기도민은 587부, 파북공동체사업 참여자는 132부였다.

### 2) 조사의 내용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문내용을 조사하였다. ① 응답자 기본사항 ② 파북공동체에 대한 인지 외에 2016년 현재 경기도 파북공동체 정책사업 5개의 주제 영역에 따라 관련 설문을 개발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요인으로 제시한 항목을 지역문제, 지역참여, 지식, 지역공헌, 공동체활동환경, 공공지원사항으로 분류하여 설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문의 내용의 적절성 등은 경기도 파북공동체지원센터의 전문가 및 실무가에 의뢰하여 확인받았다.

### 3) 분석의 방법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네 가지 면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파북공동체의 인지도 및 사업 참여에 관하여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파북공동체의 다섯 가지 주제 사업영역에

〈표 2〉 분석틀

단계	분석내용	
1단계	인지도 조사결과 분석	
2단계	5개 정책사업	요구 분석
3단계	공동체 활성화요인	
4단계	지역비교분석	
종합반영 및 성과		
5단계	지원모델개발	

대한 경기도민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활성화 요인에 따라 요구를 조사하고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지역공동체활성화요인에서 중요시되는 마을인재와 지역공헌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과 지원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궁극적인 성과로서 지역사회적경제공동체의 보급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모델을 제시한다.

〈표 1〉 설문조사 항목

구분	항목		구분	항목	
인지/ 참여	사업 인지/사업 참여경험		지역 문제	문제인식 경로/지역문제 참여의지/지역문제 의논처	
	참여기간/사업/유형/역할/경로/만족도			주민 참여	주민참여/주민참여 동기/ 주민참여 홍보
파북공동체에 대한 수요조사	사람	필요인재/ 필요연령대 /기여영역	지역 공동체 활성화 요인	지식	개인의 사업화 기술 소유 여부
	마을	소속공동체/ 필요공동체/ 필요일자리		지역공헌 및 이익	지역기여가치/사업참여/ 파북상품이용
	관계성	의견수렴참여/ 공동체 사업의 역할/근경시 도움 여부		공동체 활동	참여지역공동체유형/지역공동체 참여 여부/역량배양 과제
	호혜와 협동	공동소비/ 생산활동여부/ 전통시장 이용여부/ 이웃창업에의 도움		공공 지원	만남의 장/전문가연계
	융복합	융복합 연계 /참여의사 사업/			

〈표 3〉 일반경기도민과 따복공동체 경험이 있는 도민들 간의 집단 간 차이: 단변량 분석

설문		결과유형		일반경기도민		따복공동체참여자		차이	t값	유의도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따복공동체 인지도 및 참여	마을에서 사회적 경제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근로를 통해서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568	3.39	132	4.03	0.64	-7.56	0.000		
	지역과제 등이 있을 때 지역주민과 함께 일을 만들고 싶은가?	587	3.16	132	4.27	1.11	-13.96	0.000		

#### 4. 분석 결과

##### 1) 따복공동체 인지도 및 참여

따복공동체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101명(17%)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따복공동체라고 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일반경기도민들은 587명 중 541명(92%)이 ‘아니오’라고 응답함에 따라 경기도민은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경기도민과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 모두 합하여 정책인지도의 평균이 24%로 나타났는데 용인시의 경우 35%이고 수원시의 경우도 32%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및 사업 인지도에 있어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는 응답자의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일반경기도민의 차이는 인지도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기대, 실천의 수준 등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근로할 의향이나, 지역과제 등이 있을 때 지역주민과 함께 일을 도모할 의지의 정도에 있어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반경기도민과 따복공동체 참여자 집단 간의 설문조사 결과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유의하게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따복공동체의 이해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 간에서도 인지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 2) 따복공동체에 대한 수요조사: 5개 사업 영역

###### (1) 설문조사 결과의 정리

따복공동체가 추진하는 5개 사업 영역(사람, 마을, 관계성, 호혜와 협동, 융복합)에 따라 경기도민의 요구를 조사하고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의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 첫째, ‘사람’에 대하여는 마을인재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는데 〈표 4〉와 같이 경기도민이 마을에 필요한 인재로서 가장 원하는 유형은 교육리더이다. 이는 일반도민이나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나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경기도민은 40% 이상이 ‘모든 연령층’에 따복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지각하고 있다.

둘째, ‘마을’에 관하여는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경기도민은 마을공동체에서 전체 응답자의 38%가 소속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소속된 공동체로는 교육공동체에 18%, 문화예술공동체에 15%의 주민이 소속되어 있다. 나아가 향후 필요로 되는 공동체활동 역시 문화예술공동체(25%), 교육공동체(23%)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관계성’에서는 일상의 이웃 간 상호작용이나 사회적경제에서의 상호협력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지역공동체를 통하여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반도민이나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 모두 보

〈표 4〉 인재유형

우리 마을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재상		따복공동체참여자	경기도민	전체
1위	교육 리더	45%	33%	35%
2위	기부자	24%	26%	26%

〈표 5〉 공동체 소속 여부

귀하는 우리 마을에서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소속공동체	따복공동체참여자	일반경기도민	전체
1위	해당없음	11%	45%	38%
2위	교육공동체	42%	12%	18%

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한 가치나 이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가와 같은 좀 더 실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표 6〉과 같이 따복공동체 사업참여자의 경우, 일반도민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개인주의의 극복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 관계성에 대한 요구

1.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 이외의 지역주민들에게서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귀하가 보유한 가치나 이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고자 합니까?		
질문번호(5점척도)	따복공동체 참여자	일반 경기도민
1	3.15	2.95
2	3.80	2.88

넷째, 호혜와 협동의 경계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일반경기도민의 평균 수준은 보통이다. 그러나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는 〈표 7〉과 같이 일반경기도민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먼저 공동구매나 공동생산의 실천여부에 있어서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이용여부에 관해서도 나아가 이웃창업에의 투자나 도움에 대하여도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의 경우, 일반경기도민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의향에 대하여는 전술한 사항보다는 일반경기도민도 다소 긍정적인 반응

〈표 7〉 호혜와 협동의 경계

1. 귀하는 공동구매, 산지직송 등 공동의 소비활동이나 생활활동을 하는 편입니까?		
2. 귀하는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까?		
3. 귀하는 이웃의 창업에 투자나 기타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번호(5점척도)	따복공동체참여자	일반 경기도민
1	3.37	2.66
2	3.65	2.66
3	3.78	2.97

을 보여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는 평균 3.78점, 일반경기도민은 평균 3.52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융복합에 대하여는 필요한 융복합사업, 참여희망사업, 연계사업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융복합 사업 분야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4%가 ‘지역일자리’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12%가 ‘방과 후 아동지원’을 꼽았다. 참여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18%가 ‘지역일자리’를, 12%가 ‘방과 후 아동지원’을 꼽았으며, 이어서 ‘마을학교’와 ‘마을도서관’을 각각 11%씩 응답하여 일자리 창출과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1차산업 종사자(30%)는 유통업 및 보관업을 꼽고 그 다음이 공공 및 민간의 교육기관을 선호하였다. 2차산업종사자(제조업종사자)(21%) 및 가공업 종사자(25%)도 유통 및 보관업을 꼽았으나 그 다음은 기술자 협회 및 직능인 단체, 전문가협회 등을 선호하였다. 가공업 종사자들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환경관련업 종사업자들(24%)은 관공서를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학교 등 공공과 민간의 교육기관 등과의 연계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돌봄 복지관련 종사업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31%가 ‘학교 등 공공과 민간의 교육기관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7%가 ‘노인, 여성, 청년 등 대상별 특화된 단체’를 꼽았다.

(2) 지원과제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따복공동체 지원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에 대하여 경기도민은 교육리더에 대한 요구가 높아 광역이나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경제를 견인할 교육인재양성의 과제가 시급하다. 더 나아가 모든 연령층별로 과제와 요구가 다르니 세대별 사회적경제교육과 실천지원에 대응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따복공동체 참여자와 일반경기도민의 요구수준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재양성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경험한 집단과 일반인에 대한 차별화된 양성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동체 활동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반 이상이 공동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전역에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나아가 활동내용도 교육이나 문화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공동체활동에서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의지는 일반도민들에 비해 높아 그들이 리더로서 새로운 공동체활동을 재 생산하도록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관계성 형성에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는 관계성의 모든 항목에서 일반도민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관계성형성에 대한 경기도민의 낮은 기대감은 따복공동체사업이 지역사회에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아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기반과 동시에 성과가 되는 ‘관계성’ 형성 및 내실화에 이르지 못한 것에 관련된다. 그리하여 공동체 이해 및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경기도 전역에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호혜와 협동의 경제에서는 소비자로서의 구매에 대하여 양자가 비교적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의 실천에 대하여는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의 반응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융합을 도모할 때는 일반 소비자로서의 참여와 실천의 영역을 분류하고 실천의 영역에서는 이해도와 경험에 있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생산 및 구매, 사업장홍보, 창업협력 등과 같이 참여활동의 세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융복합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융복합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교육관련 사업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사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 연계대상이 확연히 다르다. 제1차산업종사자나 제2차산업종사자들은 유통 및 보관업 종사자들과의 연계 요구가 높고 제3차산업종사자들은 관련단체나 기관 그리고 전문가 단체와의 연계요구가 높아 이러한 요구에 대응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 참여에서는 교육성과의 활용과 연계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리하여 과제별 대상별로 유형화한 보다 세분화된 사업영역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계 사업도 분야 간 연계, 대상 통합적 연계, 대상 특화적 연계, 과제중심의 연계, 성과중심의 연계 등과 같이 좀 더 ‘개별화된 요구별 지원’이 필요하다.

### 3) 지역공동체 활성화요인 분석

#### (1) 설문조사 결과의 정리

전항에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의 정책사업의 분류에 따른 조사와 달리, 지역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로부터 도출한 지역공동체활성화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계속하여 경기도민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방법론에서 전술한 <표 1>에서와 같이 지역문제, 주민참여, 지역지식, 지역이익, 지역공동체참여환경, 공공지원 등이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일반경기도민과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는 <표 8>과 같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가 높은 반응을 보였다.

<표 8> 지역문제

1. 지역의 문제나 과제 혹은 지역공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지역주민과 함께 일을 만들어 하고 싶습니까?		
소속공동체(5점 척도)	따복공동체 참여자	일반 경기도민
평균	4.27	3.16

둘째, 주민참여에 대하여는, 마을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공론의 장이나 기회에 대한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냐에 대하여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일반경기도민 양자 모두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참여 동기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이나 유용성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적 성장 기회에 대하여 양자 모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지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세 가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사업화할 만한 기술의 보유정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역 내에 사업화할 만한 기술이나 자원이 있는가에 대해 <표 10>에서와 같이 따복공동체사

<표 9> 참여 동기

1.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참여 동기를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소속 공동체	따복공동체참여자	일반 경기도민	전체
필요성과 유용성	45%	35%	37%
개인적인 이해관계	8%	26%	22%
사회적 성장 기회	23%	20%	21%

〈표 10〉 지식에 대한 관심

1. 귀하는 사업화해 볼만한 생산기술이나 생활의 기술 등을 가지고 있나요?		
2. 귀하의 마을에는 사업화할 생산기술이나 생활문화, 혹은 지역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3. 마을의 문제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지식공유나 공동학습의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설문(5점척도)	따복공동체참여자	일반 경기도민
1	3.48	2.74
2	3.88	2.88
3	4.25	3.17

업 참여자가 일반 경기도민들보다 높은 정보와 인식을 보인다. 나아가 지역 내에 지식공유나 공동학습의 기회가 있는가에 대하여도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는 ‘다소 높게’ 기회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점은 따복공동체가 기술보유의 지역민들의 사회참여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따복공동체사업에의 참여로 인하여 기술력 고양에 대한 동기제고나 요구 실현 등이 가능케 되는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지역사회공헌이나 이익의 환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조사하였는데 먼저 따복공동체가 지역에 기여하는 가치 중에 기대하는 것은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나 일반경기도민 모두 지역 인간관계 활성화에 대하여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마을에서 유용한 공동자산을 형성하고자 할 때 투자나 기부 등으로 참여할 의향에 대하여는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가 보통이상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복공동체

〈표 11〉 지역공헌 및 이익의 환원

1. 따복공동체가 지역에 기여하는 가치 중에 다음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		
2. 마을에서 유용한 공동자산을 생성하려고 할 때, 투자나 기부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5점 척도)		
3. 따복공동체가 사업체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가치 중에 다음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		
번호	따복공동체참여자	일반경기도민
1	양자 모두 1순위 인간관계의 활성화	
	31%	24%
2	3.86	3.05
3	양자 모두 1순위: 품질과 서비스	
	39%	58%

가 지역에 기여하는 가치에서는 양자모두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혹은 사업의 개성이나 정체성을 중시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참여환경에 대하여는, 지역 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일반경기도민은 모두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을 꼽았다. 또한 교류의 장으로는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일반경기도민의 많은 수가 ‘생활지 근처의 주민자치센터’를 꼽았다. 나아가 따복공동체사업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의 36%와 일반경기도민 27%가 ‘주민자치센터’를 꼽았다.

〈표 12〉 지역공동체 환경

1. 귀하가 마을에서 교류, 학습, 문화 혹은 지역사회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2. 따복공동체사업의 가이드라인의 제공, 성공모델의 학습, 참여자 교류의 장으로 적합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공동체환경		따복공동체 참여자	일반 경기도민	전체
1	주민자치센터 (1위)	18%	20%	19%
2	주민자치센터	39%	44%	43%

여섯째, 관공서의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에서는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일반경기도민 모두 ‘만남의 장’을 1순위로 꼽았다. 나아가 지역문제해결에 관심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따복공동체사

〈표 13〉 공공 지원에 대한 요구

1. 따복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연계를 도모할 때 관공서가 무엇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가 지역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지역공동체환경		참여자	일반경기도민	전체
1	만남의 장(1순위)	28%	38%	36%
2	문제이해와 활동공간이나 모임(1순위)	35%	26%	33%
	실무전문가와외 만남(2순위)	29%	35%	30%

업 참여자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나 모임'을, 일반경기도민의 경우 '문제해결을 사업화할 수 있는 실무전문가와 만남'이라고 응답하였다.

(2) 지원과제

위와 같은 조사결과의 특징에 기반을 두어 지원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제에 관해서는 지역문제의 이해,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나 계기를 접하도록 생활지 중심의 공공시설에서 홍보와 체험행사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에 관하여는 사회적경제로 추진하는 사업유형, 사업방식 그리고 지원수혜범위나 분야에 관하여 학습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이익에 대하여는 인간관계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높으므로 지역 내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을 촉발할 공동체 기반 사업, 네트워크 사업, 시군단위의 중점사업(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공동체참여환경에서는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일반 경기도민 모두 편리하고 접근성을 가진 공동체활동 환경을 선호하여 생활지 근접화 전략이 필요하다. 마을단위에서는 기존의 광역이나 시군의 대표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생활지 거점기관의 설정을 통하여 분산하여야 한다. 이는 공간이나 업무분산뿐만 아니라 지역 지도자들의 다양화와 확대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활동공간의 마련과 따복공동체사업의 운영능력과 기술보유를 위하여 관련된 단체나 실무자 및 전문가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종사분야에 따라 필요로 되는 자원내용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여 기계적이고 표준화된 지원보다는 집단이나 지역, 그리고 과제와 요구에 따른 개별화 지원이 요구된다.

4) 지역 비교

(1) 비교기준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 중, 공동체에 대한 요구의 일

정부분을 지역 간 비교를 하여 지원에서 고려할 점을 파악하였다. 비교시 고려한 사항은 첫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유무, 둘째, 도시와 농촌의 차이, 셋째, 사회적경제기반의 차이이다. 첫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16년도 기준 경기도 15개의 시군이 있고 16곳이 없어 이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14〉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유무 구분

구분	지역명
사경센터가 있는 곳(15곳)	고양, 광명,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용인, 파주, 포천, 화성
사경센터가 없는 곳(16곳)	가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동두천,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이천,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둘째, 도시와 농촌의 구분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거주지 특성을 농촌과 도심지로 분류한 후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여 해당 항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적경제기반의 정도는 2015 경기도 따복공동체 백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수를 3분위로 나누어,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 순으로 상·중·하로 정의하고 있다.

〈표 15〉 사회적경제기반의 강약 구분

구분	지역명
상위 1/3 (10곳)	수원, 안산,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화성, 남양주, 시흥
중간 (11곳)	광명, 광주, 구리, 김포, 안성, 양주, 오산, 의정부, 파주, 포천, 평택
하위 1/3 (10곳)	연천, 가평, 과천, 동두천, 의왕, 하남, 여주, 양평, 이천, 군포

2) 설문 비교 분석 내용 및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 간 비교한 주제는 지역민이 선호한 공동체 내의 요구부분으로서 우리마을인재, 공동체의 지역공헌기대에 관해서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에 필요한 인재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1순위 교육리더, 2순위 기부자, 3순위 지식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 교육리더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지역, 농촌지역, 사회적경제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하며, 1순

위를 충족하는 지역에서는 2순위 기부자를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으며, 사회적경제기반은 중(中)정도이고, 도시지역인 곳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따복공동체의 기여영역에 대하여는 1순위 주민인식 및 능력개발, 2순위 주민조직 및 집단 활동의 활성화, 3순위 주민의 소득증대로 나타났다. 특히 1순위 주민인식 및 능력개발의 프로그램을 먼저 기획할 지역은 사회적경제기반이 높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등의 농촌에서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순위를 만족한다는 전제조건하에, 2순위 주민조직 및 집단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지역은 사회적경제기반이 높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등의 도시 등으로 고려된다. 이와 같이 <표 16>과 같이 경기도 31시군은 지역여건에 따른 요구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지원전략이 요구된다.

#### 4. 연구의 성과: 사회적경제공동체의 지역화 모델

이상을 통하여 지역사회적경제의 지역화의 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제를 경기도민의 요구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 사회적경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방향을 모델로 제시하면 크게 6개의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1) 통합화 모델과 개별화 모델

지역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데는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전체 도민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일반경기도민이나 따복공동체참여자 모두에게서 보이는 공통의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군 전체에 통일적으로 추진할 중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접근의 지원을 ‘통합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공동체경험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어느 시군에도 기본적으로 공통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이다. 반면 ‘개별화 모델’은, 지역사회가 가진 과제나 요구의 특별성에 따라 지원사업을 반드시 차별화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이다. 조사결과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주된 종사분야에 따라 연계대상이나 공동체 활동의 지역공헌에서 기대하는 것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통합화 모델이 사업이나 지원의 방식을 단일화 하여 통일성이 높을수록 성과를 제고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개별화 모델은 지원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차별화하여야 비로소 지역화의 성과를 제고하

<표 16> 31시군의 요구 순위의 차이

구분	우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우리 마을의 필요인재	1	교육리더	농촌	■							■	■	■	■	■		■							■									■
	2	기부자	도시		■					■							■											■		■			
	3	지식인	도시			■	■	■		■							■		■				■		■			■	■	■			
기여영역	1	주민인식 및 능력개발	농촌	■							■	■	■	■	■		■							■									■
	2	주민조직 및 집단활동의 활성화	도시	■							■	■	■	■	■		■							■									■
	3	소득증대	농촌	■		■					■										■	■	■		■		■						■

〈표 17〉 모델 1.2

특징 유형	통합화모델	개별화모델
특징	· 경기도 전체 과제	· 기초단체, 집단에 따른 과제
조사 결과 연계성	· 낮은 인지도, 공동체경험의 부족의 극복, 공동체활동환경 열악함의 해소	· 1차산업종사자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연계지원 차별화 · 사회적경제기반에 따른 차별화
적용 대상	· 홍보, 기본교육확산, 공동체만들기매뉴얼 보급	· 대상별 요구조사 및 결과의 적용

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는 중점사업으로서 기초 교양으로서의 사회적경제 강좌운영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통합화 모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시군 단위 별로 더 나아가 권역이나 행정동 단위별로 거주민들의 특성이나 과제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 간다면 이러한 경우는 개별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반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유무,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 환경정비 등과 관련하여 유사지역의 특성을 묶어 권역화를 하여 대응하는 경우는 이 양자의 특성을 융합한 형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 모델은 〈표 18〉과 같이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는 중점사업이 될 수록 통합화모델로, 생활지점별로 과제 대응형, 요구대응형이 될수록 개별화 모델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18〉 사업개발특성과 모델적용

경기도중점사업	권역별 거점 사업	생활 지점 사업	
· 경기도 전체의 따복공동체의 홍보	· 도시와 농촌 · 사회적경제 기반	· 지역거주민의 특성과 요구	
통합화모델	←————→		개별화 모델

2) 수요대응모델과 역량맞춤모델

또한 본 연구의 성과로서, 선행연구와 위의 조사연구의 결과, 통합화 모델과 개별화 모델이 적용되는 근거로서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것같이 지역주민의 요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 성과에 따

르면 요구에 따른 지원과 별개로 ‘역량’이라고 하는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서 전술한 것 같이 따복공동체사업 참여자와 일반도민과의 사이에서 따복공동체에 대한 인지도·지식·실천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 즉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 지원센터의 유무, 거주지의 산업 등에 따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요구를 사업화, 현실화 할 수 있는 주민이나 지역기관 의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적경제공동체 지원의 과제에 관련하여 두 가지 모델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존의 대응태세와 같이 요구에 대응한 지원이다. 현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량맞춤모델이다. 역량맞춤모델은 지역사회의 과제의 난이도, 지원환경의 정비여부, 주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 그리고 기술 및 공동체 운영에서의 능력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조절하여 가는 유연하고 능동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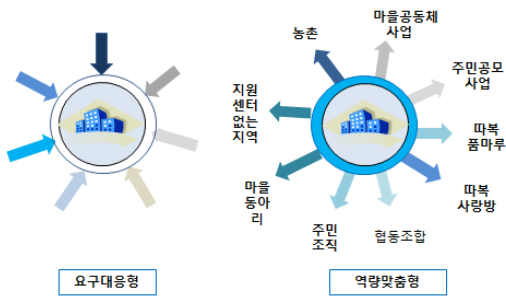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센터에 찾아오는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지역사회에 내재된 문제나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역량에 맞게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필요하고 역량별 교육과정별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지도자의 파견 및 순회 등이 필요하다.

〈표 19〉 모델유형 3.4

특징 유형	수요대응모델	역량맞춤모델
특징	· 지역과 집단의 요구에 근거	· 지역이나 집단의 역량을 고려
조사 결과 연계성	· 공동체의 요구에서 문화 및 교육공동체가 높음.	· 따복경험자와 일반도민 사이에 지역이해력의 차이가 큼.
적용 대상	· 공동체조성사업이나 환경정비	· 다양한 공모사업 · 다각적인 교육과정운영

3) 자원집중모델과 자원분산모델

현재 대부분의 시군의 사회적경제의 지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같이 시군의 대표 기관에 자원과 기능을 집중시킨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수요대응형과 역량맞춤형

(표 20) 모델유형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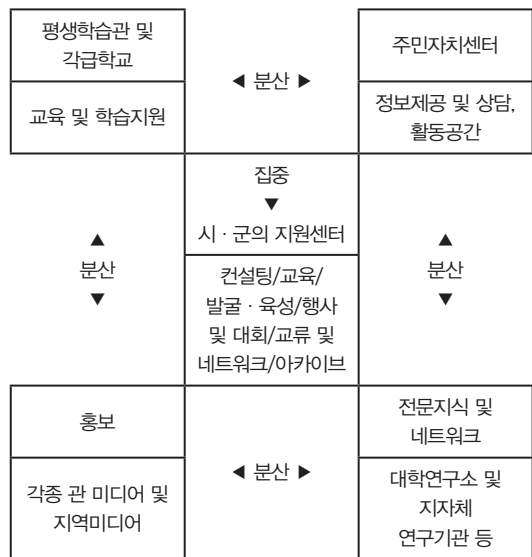
유형 특징	자원집중모델	자원분산모델
특징	· 지역 전체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수행 혹은 관리하는 지원	· 지역 전체에 특화된 자원의 거점적 분산이나 동류의 자원의 배분적 분산을 통한 지원
조사 결과 연계성	· 실무자연계요구, 인큐베이팅에 관한 요구.	· 지역별 요구, 우선순위대응, 전문가와의 연계, 만남, 교류 요구
적용 대상 예	· 사회적경제 지도자양성,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 전체교류의 장 제공	· 지역공공기관활용, 대상별·사업별 거점지원기관지정, 사업별 프루노보특화기관 지정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http://ddabok.or.kr/PageLink.do>, 2018년 8월 23일 검색).

이와 같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이를 대체할 기관이 시군별로 존재하므로 지자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교재발간 및 온라인 강좌 제공, 전체네트워크구축 및 관리, 동류형 사업별 과제별 컨설팅 창구운영, 핵심인재 역량개발 등과 같은 사업은 센터를 중심으로 한 자원집중형의 지원이 필요로 된다. 그러나 주민의 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정보습득이나 체험 및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는 생활지 근처의 근거리 지점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에는 사회적경제지원전담기관은 아니더라도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공공기관들이 문화적·사회적 자원을 보유하고 존재한다. 나아가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시군의 따복공동체에 대한 수요를 전부 수렴할 수 없고 모든 관련 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면에서 기

존의 센터 중심의 자원집중모델과 병행하여 자원분산형의 지원모델이 향후 필요하다. 실제 시군 중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적경제자원과 기능이 분산·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2016년 12월 A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서면 의견). 특히 지원센터가 없거나 공동체기반이나 사회적경제기반이 약한 곳은 경기도민이 선호하는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기존의 공공시설(도서관, 평생학습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에 분관설치나 협력창구를 마련하여 지원 자원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기도민이 지역문제해결을 위하여 전문가나 실무자 연계를 원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필요부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평생학습(직업교육기관 포함)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의 특별한 자원이나 기능을 분산시킴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림 3)과 같이 지역사회 교육·문화·고용 관련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의 특별한 자원이나 기능을 분산시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이 사회적경제환경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기본사업의 광역적 확산을 도모하는 통합형모델이나 지역별 요구대응형 및 역량맞춤형모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맞게 사회적경제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자원집중모델과 자원분산모델

## 5. 마무리

이상을 통하여 지역사회적경제공동체를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가기 위한 모델로서 여섯 가지를 살펴 보았다. 통합화 모델과 개별화 모델, 수요대응모델과 역량맞춤모델, 그리고 자원집중모델과 자원분산모델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수요자의 요구분석에 근거하여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지원기관 나아가 개별사례들에 관해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다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더욱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반영하면 이외에도 지역화 지원 모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과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여 가겠다.

### 참고문헌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6, 『2015 경기도 따복공동체 백서』.

김향집, 2011,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4), pp.123-148.

김경희, 201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pp.126-150.

김용문·정윤재·이형신·이상동, 2015,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남시 지식 산업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연구』, 성남시 연구보고서.

김현호, 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남승균, 2015, 사회적 경제와 지역내발적 발전에 관한 연구, 『인천학 연구』, 23, pp.85-124.

박인권, 2012,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 전략,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4), pp.1-26.

박봉원·유영심, 2016, 리빙랩(Living Lab)와 지역사회개선,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박소연·박인권, 2013, 마을기업에 의한 전통시장활성화 메커니즘 분석: 통인시장 사례, 『공간과 사회』, 23(3), pp.87-96.

박경민, 2016, 마을교육공동체구축을 위한 실천방안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병찬, 2007, 학습도시에서의 주민교육공동체운동의 전개, 『평생교육학연구』, 13(4), pp.173-201.

양병찬, 2015, 마을만들기사업과 평생교육의 협동가능성 탐색 시흥시 '학습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1(3), pp.1-23.

여관현, 2015,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pp.29-51.

이기태·하현상, 2016,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거래비용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25(1), pp.455-490.

이현주, 2015, 마을기업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4(2), pp.61-89.

이왕건, 2012, 주민중심의 커뮤니티를 도시·지역 재생방안, 『국토』, 363, pp.22-29.

전지훈·최문형·정문기, 2015, 지역의 공동체활동과 문화 및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코인스트리트, 나가하마, 삼덕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1), pp.87-114.

정병흠, 2016,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역문화역량 강화 방안-전통문화유산교육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30(4), pp.161-180.

최인수·김건위, 2015, 리빙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6(4)(2015. 12), pp.83-101.

최영출, 2004,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AHP방법론의 적용, 『지방행정연구』, 18(1), pp.19-50.

채종현·최준규, 2012,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이 역할에 관한 연구: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pp.196-225.

최준규, 2016, 『경기도 따복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5년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본연구사업 결과보고서.

황익주·정현목, 2012, 도시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지역공동체형성의 과제: 4개 도시 사례의 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35(2), pp.101-128.

한상일·정무권·박문수·윤성국, 2013, 지방자치단체의 비형식학습에 대한 비교 사례 분석: 한국과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367-392.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사회적 기업 개요집』.

金子郁容, 2004, 『それはコミュニティからはじまった. 本間

证明他(2004),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時代-NPO  
が変える産業, 社会, そして個人』, 岩波書店.  
宮本 憲一 · 中村 剛治郎 · 横田 茂, 1990, 『地域経済学』, 有  
斐閣ブックス.

계재신청 2018.06.11.

심사일자 2018.06.25.

계재확정 2018.08.29.

주저자: 장지은, 교신저자: 김연복